설립자 김명환 박사에 대하여

김명환은 원래 치과의사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음악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뜻에 순종하여 유럽에서 작곡을 공부하였고 대학 등 여러 곳에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도 수년간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배신학적으로도 준비되기 위해 같은 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 목회석사학위(M. Div.)를 받았으며, 그가 2006년부터 예배사역자로 섬기는 미국의 포도원길 침례교회(Vine Street Baptist Church)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전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찬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수많은 찬송가 편곡 및 변주곡을 만들어 출판했습니다. 그 찬양곡에 내재하는 영성과 예술성을 체험한 많은 아이들이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시 22:3)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축복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2001년 이래로 그는 한국의 콩쿨을 주관했으며, 2005년부터 다년 간 미국대회를 섬겼고, 2007년부터는 중국대회를 돕고 있습니다.

김명환의 찬송가 변주곡은 그 신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때문에 종종 이 콩쿨의 지정곡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아이들과 기독 음악인들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백곡이 넘는 그의 작품들을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그의 이름(Johann Kim)을 검색창에 넣거나 직접 **http://www.youtube.com/kimpraise** 라고 주소창에 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태 21:16)

Vision 60 / 120 / 2020

2012년 초에 기도하는 가운데 김명환 목사는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국제새찬양후원회가 2020년까지 전세계 60개 도시에서 청소년 찬양축제를 열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는 분명 이적을 행할 것이며 60번이라도 이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아이들, 인도의 아이들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으로 음악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또한 2020년까지 120개 교회가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역교회가 이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콩쿨이 열렸으면 하고 바라는 도시에 어떤 헌신된 크리스찬 음악선생님들을 알고계시다면 우리가 그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그들이 그 도시의 찬양축제의 설립자가 될지...

Vision 60/2020

"주여, 2020년까지 전세계 60개 도시에서 청소년 찬양축제가 열리게 하소서!"

당신도 도울 수 있습니다!

국제새찬양후원회 (회장 백철호 박사)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이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며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Thank You & GOD bless you!

홈페이지: http://newpraise.org
협력과 기부에 관한 이메일: kimpraise@gmail.com (후원방법: 홈페이지 참조)

INPSS
국제새찬양후원회
INTERNATIONAL NEW PRAISE SUPPORT SOCIETY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환영하는 새찬양 청소년 찬양축제가 2012년에 1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을 수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을 주심을 믿으며, 그것이야말로 이 찬양축제가 강조하고, 또 축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2001년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콩쿨은 2004년 미국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중국에서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약 열 개 정도의 큰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국제새찬양후원회(INPSS)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에 속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새찬양축제를 여러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찬양악보 및 CD 기증 등 여러 다양한 찬양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서울에 있으며, 중국의 북경, 상해, 광주에 세 개의 지부를, 그리고 미국 켄터키 루이빌에 하나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역을 하는가

우리는 이 사역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하기까지 하다고 믿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태 21:16)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시 67:3)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대하 16:25)

위의 말씀은 우리의 사역의 중심가치를 빚어내는 많은 성경 말씀 중의 몇 구절입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도록 모든 민족의 어린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할 것"을 명하십니다. 마태 21:16 에 "온전케"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καταρτίζω"는 또 "준비하다, 고치다, 디자인하다"등의 뜻을 갖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며 비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21)

여기서 찬송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힐라"는 분명히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NIRV 영어 성경도 "나는 그들이 노래로 나를 찬양하기 원한다"로 번역합니다. 이 구절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즉, 우리 아이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 69:30,31)

위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그 어떤 예물보다도 노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찬양사역이 갖는 특별한 위치를 보여주는데,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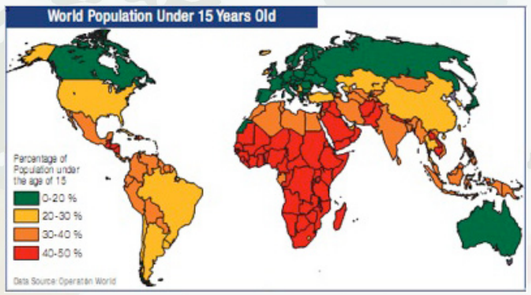
2) 찬송가의 전통은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찬송가의 전통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찬양음악보다 찬송가 편곡을 더 중시하며 콩쿨 참가자들이 전통 찬송가에 기초를 둔 곡들을 선택하도록 장려합니다. 전통 찬송가에 존재하는 영적, 예술적 가치는 말할 수 없이 크고 귀한데 안타깝게도 그 가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전통 찬송가에 들어있는 셀 수 없는 가치, 즉 견고한 신학, 건전한 교리, 아름답고도 시적인 표현들, 다양한 음악형식 등은 요즈음 찬양곡에서 자주 만나기 힘듭니다.

이 찬양축제는 이 보석과 같은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시금 즐기는데 매우 효과적인 행사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전통 찬송가를 들어보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3)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4-18살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여러 면에서, 특히 전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4-14 살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그들이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연령층이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시겠지만, 그들이 때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 11:25-26)
(4-14 Window 안내서 중에서)

음악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매우 효과적일뿐 아니라 매우 필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음악에게 그 듣는 자들의 성격을, 나아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는 이 콩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4/14 Window 운동의 선구자이신 루이스 부쉬 (Luis Bush) 목사도 아이들에게 보다 전인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는데, 여기에는 음악적 접근도 포함됩니다.

- **목표를 줍니다.** 아이들은 매우 가시적인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목표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축제는 그들에게 다양한 상을 주며, 여러 연주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연습하는 동안 음악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음악적 진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위험한 세상문화의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의 타락하고 위험한 문화와 직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순수하지만 아직은 연약한 영혼은 특별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 행사는 한 번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나 이를 위해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므로 그 모든 과정은 세상적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자연스럽게 보호합니다.

- **음악적 재능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재능을 가능한대로 빨리 발견하고 이를 적당하게 개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지 않으면 그들의 재능은 발견되지 못하고 결국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콩쿨은 많은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 다시 드려져야 하기에, 우리는 가능한대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여 늦기 전에 그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음악교육과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콩쿨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들의 선생님을 도와서라도,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름찬양캠프를 열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다시 찬양캠프를 열 계획입니다.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INPSS는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 행사는 참가자들의 가정, 선생님, 교회, 나아가 지역사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므로 (시편 22:3) 그 찬양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몇몇 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 준비된 찬송가 편곡을 예배에서 연주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국제 새찬양후원회의 역사

1990년대 말미에 작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작곡가 김명환의 교회음악 작곡사역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기(시 33:3, 40:3, 96:1, 98:1, 144:9, 149:1, 이사야 42:10, 계시록 5:9, 14:3) 때문입니다. 후에 김명환은 이 모임을 그 사역에 맞게 "새찬양후원회"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는 여러 교회음악 악보를 출판할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어린이 찬송가 피아노교본"이 교회음악의 새 역사를 쓰게 되리라고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8년 봄, "어린이 찬송가 피아노교본"을 거의 완성하던 즈음, 김명환은 그 악보를 천권 기증하라는 내적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이를 곧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보였지만 새찬양후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오년 후쯤 그가 그동안 기증된 악보를 세어봤을 때 그것은 천 권이 아니라 만사천권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현재 이 악보는 새찬양홈페이지 (http://newpraise.org)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셨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 악보의 찬양곡들을 열심히 연습하여 음악회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전국 어린이 찬송가 피아노콩쿨"을 계획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1년 5월 그가 섬기던 분당의 할렐루야교회에서 약 6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그 첫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2004년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재미 사업가 정정호 집사에 의해 미국에서도 이 콩쿨이 열리게 되었고, 2007년에는 하나님께서 중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문하복 장로에 의해 이 콩쿨이 중국에서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 나라의 약 열 개 도시에서 이 콩쿨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정정호 집사는 2009년 INPASS 라는 이름의 단체로 따로 분리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심으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